

누리호 탑재위성, 지상국 간 교신 성공

- 차중 3호 위성 상태 양호, 모든 기능 정상 작동 중 -
- 부탑재위성 12기 중 5기 최초 교신 성공, 7기 교신 예정 -

- 우주항공청(청장 윤영빈, 이하 우주청)은 11월 27일 01시 13분에 한국형발사체(누리호)에 실려 발사된 차세대중형위성 3호(이하 차중3호)가 목표 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 후, 오늘 01시 55분경 남극세종기지 지상국과 양방향 교신에 성공하였다고 밝혔다.
 - 차중 3호는 첫 교신에 이어 02시 48분경, 대전 항우연 지상국 안테나를 통해 추가 교신에 성공하였으며, 현재까지 항우연 지상국과 2차례, 해외 지상국(남극세종기지, 노르웨이 스발바르)과 12차례 양방향 교신을 수행하였다.
- 오늘 교신에서는 차중 3호 본체 구성품의 기능을 확인하였으며, 대전 항우연 지상국 등과의 추가 교신을 통해 위성의 세부 상태정보를 내려 받고 정밀 점검을 수행할 계획이다.
- 또한, 향후 2개월간 초기 운영을 거쳐 탑재체 점검 및 임무 준비를 수행한 후, 1년간 태양동기궤도에서 지구를 하루에 약 15바퀴 돌면서 본격적인 우주 과학 임무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 차중 3호에는 바이오 3D프린팅 기반 줄기세포 3차원 분화 배양검증(BioCabinet), 우주플라즈마-자기장 측정기(IAMMAP), 우주용 광시야 대기광 관측기(ROKITS)가 탑재되어 있어, 우주과학/기술검증 임무를 수행한다.
- 한편, 12기의 부탑재위성들도 개발 주관기관에서 초기 지상국 교신 및 성능 점검을 착수했다.

- 부탑재위성 12기 중 5기*는 지상국과 교신을 완료하였다. 나머지 7기** 중 일부는 첫 교신을 시도할 예정이며, 교신하지 못 한 위성의 경우 예정된 일정에 따라 추가 교신을 계속 시도할 예정이다.

* ETRISat(ETRI), JACK-003, 004(코스모웍스), INHA-RoSAT(인하대), K-HERO(KAIST)

** SPIRONE(세종대), EEE Tester-1(항우연), PERSAT(쿼터니언), SNUGLITE-Ⅲ(서울대), BEE-1000(스페이스린텍), COSMIC(우주로테크), 세종4호(한컴인스페이스)

- 부탑재위성들은 각 기관이 개별 지상국과 각자 교신하기 때문에 교신 시점이 모두 다르며, 교신 성공 여부에 따라 초기 성공 판단 시점도 달라진다.
- 우주청은 발사 후 5일이 지난 12월 2일, 부탑재위성들의 상태를 종합하여 보도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 운영빈 우주청장은 “이번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은 13기 위성에 성능 검증 기회를 제공하여 우주 임무 수행을 통해 위성 산업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5, 6차 발사도 성공적으로 준비하여 탑재 예정 위성들에 대한 성능 검증 기회를 차질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 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우주수송부문 한국형발사체 프로그램	책임자	프로그램장	현성윤 (055-856-5130)
		담당자	사무관	임성균 (055-856-5131)
담당 부서	인공위성부문 인공위성임무설계 프로그램	책임자	프로그램장	김응현 (055-856-5210)
		담당자	사무관	오태형 (055-856-5220)